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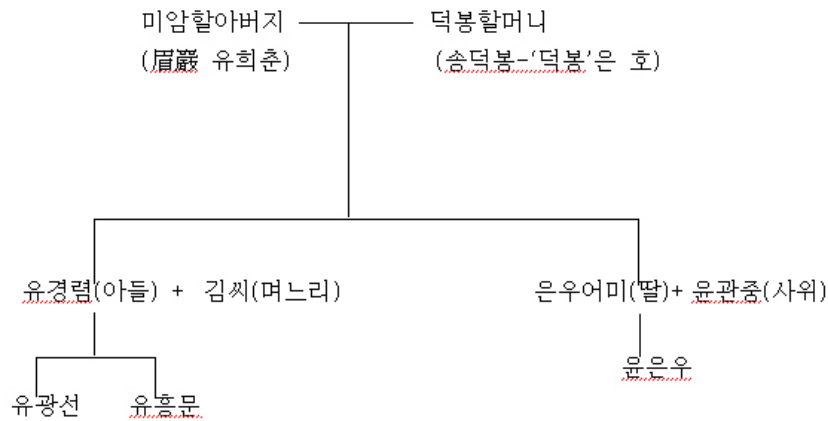
제3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작 품 소 개 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조선 중기 학자였던 미암 유희춘의 일기 ‘미암일기’를 통해 재구성한 조선중기의 생활사와 양반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족들 간의 사랑, 갈등, 화합 등의 에피소드
스토리 구성 (Plot)	시트콤 식으로 에피소드식 구성. 한 편당 한 가지 이상의 에피소드가 발생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생활사적인 정보와 가족들의 사랑을 보여줌.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별지 참조

캐릭터 소개

캐릭터 관계도



노비: 몽근 + 구화(부부), 진금, 대공, 옥석(시동)

유희춘()

이력

해남 성내에서 태어남. 담양으로 장가. 종성으로 귀양.

일찍이 정사년에 정언(正言)¹⁾이 되어 밀지의 잘못됨을 논박했다가 정미년 초에 제주도로 귀양을 갔고 또 종성으로 옮겨졌는데, 적소에 이르러서도 오직 글을 읽는 것을 일로 삼고 후생을 가르쳐 성취시킨 바가 많았다.

정묘년에 조정으로 돌아감.

성격

어른스러운 것 같지만 고리타분한 구석이 많다. 정석대로 일처리를 해야만 속이 시원해진다. 예를 들면, 밥은 꼭 다섯 끼를 먹어야 하고 세수는 몇 시에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의 규칙으로 정해져있어서 그대로 하지 못하면 일이 꼬인다고 생각한다. 집안일은 덕봉에게 맡겨 두는 편. 자신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사람 사귀는 일에 관심이 많다. 소문에 민감하다. 박식하고 글을 좋아한다. 기억력이 좋고 설명을 잘한다. 다혈질적인

1) 정언: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정 6 품 관직. 1392년(태조 1) 낭사(郎舍)의 간관(諫官) 11명 중 정 6 품인 좌우습유(左右拾遺) 각 1명이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문하부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하면서 습유가 정언으로 개칭되었다. 이때 간관의 정원이 7명으로 줄고 60년(세조 6)에는 3명이 되었다가 70년(성종 1)에는 정언 2명을 포함, 5명으로 고정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좌·우정언의 구분없이 정언 2명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성격이 있어, 두어 번 타이르다 안 되면 손이 나간다. 흥분이 미암에게 맞는 당골손님이다. 노비인 대공과 몽근도 다른데서 싸우고 돌아오면 미암에게 종아리를 맞는다.

습관

포식하지 않는다. 초혼에 일찍 눕는다. 썩을 가장 좋아한다. 이른 새벽에 흰 죽을 먹어 위가 트고 진액 생기게 한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고 좋다고 하는 것은 꼭 해보는 편이다) 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다.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나 선물 주고받은 것을 기록한다. 또 길조와 흉조에 대한 기록도 잊지 않으며, 재채기를 하면 점을 친다.

관계

덕봉을 많이 사랑하며,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낸다. 오랫동안 부부로 지내서 설레임은 별로 없지만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연애하듯 결혼생활을 한다. 하지만 은근히 덕봉에게 귀여운다. 덕봉에게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장기를 둘 때뿐이다. 하지만 덕봉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몽근이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옥석이를 아낀다. 광선을 매우 사랑한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편이다. 딸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손녀인 은우는 귀여워한다.

송덕봉

어려서부터 문학적 감수성이 발달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시를 좋아한다. 대장부 같은 성격 탓에 어려서도 막대기를 들고 쏘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이 몸에 배었는지 밖에 구경거리가 있으면 나가서 구경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미암에게 말하는 것을 즐긴다.

미암과 혼인하고 살림을 꾸려가면서 더욱 통이 커졌다. 이것저것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가족들에게 두루두루 관심이 많다. 여인들끼리의 담화에서 재치있는 말을 곧잘 한다.

긍정적이고 털털한 사고를 한다. 호탕하게 웃는 성격이다.

나름대로 애교도 있다. 사오정끼가 있어서, 말을 두 번 세 번 시키는 경향이 있다.

종종 다이어트를 위해 혼자 춤을 춘다.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그 시간을 즐긴다.

신기한 것을 보면 따라해본다.

은우어미

미암과 덕봉의 딸로 성질이 껍~하는데가 있어서 성질나면 목청이 커지고 위아래 안 가리고 들이댄다.

속은 여리지만 자존심과 고집이 세다. 하지만 잔정이 많다. 지나가다 새가 죽은 것만 봐도 눈물을 뚝뚝 흘릴 만큼. 은우를 많이 아낀다. 남편 관중과 짜잘한 일로 자주 다툰다. 덕봉과 미암의 성격을 조금씩 닮았다. 다혈질인 기질과 섬세함은 미암을 닮았고, 잔정이 많고 호기심이 풍부하며 대범한 구석은 덕봉을 닮았다. 하지만 남편인 윤관중이 바람을 피우자 질투 때문에 성격이 거칠어진다.

윤관중을 내쫓아서 윤관중의 귀에 바람이 들게 하는 장본인. 비사교적 성격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없다. 엄마와도 가끔 신경전을 벌이며 싸우기도 한다.

은우

슬기롭다. 장기를 좋아한다. 할아버지를 잘 따른다. 어린 것이 영악해서, 애어른 노릇을 자

주 한다. 눈치가 빨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말뼉이 되어드린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아빠를 준다고 챙겨둔다.

윤관중

은우어미의 남편. 야무진 면이 없어서, 관직을 잘 얻지 못한다. 첩에게 홀딱 빠져서 은우어미를 나몰라라하고 첩에게 달려가는 순정파적인 면을 보인다. 하지만 은우어미의 질투로 인해 찬 곳에서 자서 귀에 바람이 든다. 그 후 약간 어눌한 면을 보인다. 평소에는 말이 많이 없는 편이다. 얼굴이 잘생긴 편. 은우가 이상형으로 꼽을 만큼 번듯하게 생겼다. 은우어미도 혼자 있을 땐 화를 내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면 원래 화난 것의 반 정도 밖에 화를 못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유경렴

미암의 맏아들. 하지만 관직이 없이 서른까지 집에서 지내자 미암에게 타박을 많이 받는다.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대들지도 못하고 참고 사는 인물. 윤관중이 만만하게 보고 매일 놀러먹는 인물이다. 아내 김씨부인이 몸이 약해 스스로 바느질도 할 줄 안다.

광선

경림의 장남. 착하고 성실하다.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총명하다. 미암과 대화가 통해서 미암이 자주 광선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차분하면서도 담대한 면을 가진 남자다운 남자다. 지혜로운 면이 있고, 깊이 있는 면이 많다.

홍문

경림의 차남. 장난꾸러기. 덜렁덜렁 거리고,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화가 나면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다리를 쪽쪽 뺏어가며 울어제긴다. 미암에게 공부를 배우다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많이 맞는다. 맞으면서 정신 차린다고, 맞고 나면 며칠은 암전하게 공부를 한다. 그러다 또 발동이 걸리면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산으로 들로 뛰어 나간다. 집에서도 사고 전담반.

김씨부인()

몸이 유약해 항상 집 안에 있지만 홍문이가 사고를 치면 뒤통수를 하느라 바쁜 미암의 유일한 며느리.

짱구와 짱구 엄마와 같은 관계로 홍문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인이다. 그런데 집에서 소설을 많이 읽다보니 상상력만 풍부해져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관한 이상한 상상을 하는 버릇이 있다.

소형

광선과 혼담이 오고가는 처녀로 어려서부터 무예를 배워 밤마다 복면을 하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겁 없는 여인. 자신과 혼담이 오고 간 광선을 보기 위해 미암의 집에 몰래 잠입했다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광선을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지게 된다.

몽근

다혈질. 싫어하는 일을 할 땐 툭툭거리기 일쑤. 술을 좋아한다. 어려서 가족을 잃고 혼자 시동노릇을 하며 자라 외로움을 많이 탄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마누라에게 첫눈에 반해 함께 살게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마누라인 구화가 상경종사 도중 도망하자 눈이 뒤집힌다.

구화

성질이 가볍고 잘 웃는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물질적이다. ‘뭐 먹을 것은 없나’하고 부엌 근처에 가거나 음식 냄새가 나면 쿵쿵거리는 버릇이 있다. 얼굴이 반반한 편이라, 혼인 후에도 사내들의 눈길을 많이 받는다. 수다쟁이.

진금

19살의 아가씨. 건망증이 심해 잘 까먹는다. 하지만 의외로 힘이 세서 날아가는 새를 잡을 정도. 대공을 짝사랑한다. 능청스러운 대처법이 특기. 훗날 거문고에 재주를 보여 가비(歌婢)로 성장한다.

옥석

6살. 재치가 있고 어른스럽다. 몽근과는 나이를 넘어선 우정을 나눈다. 미암의 흥허물을 다 보아서인지 미암의 아깁을 받는다. 미암이 밤중에 설사를 하고 바지를 버려도 아무 말 없이 바지를 빨아다 줄 정도로 철이 들었다. 가끔은 피를 내어 몽근이와 함께 미암을 골리기도 한다.

대공

방황쟁이. 자신의 꿈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늘 한다. 감수성이 예민. 시조를 읊으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이런 대공을 건드리는 것은 시한폭탄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시놉시스

1. 찐돌 대 찐순 대격돌

모든 것에 쪼잔하고 짜게 구는 관중.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은우에게도 찐순이 기질이 옛 보이는데 콧감을 먹고 있는 은우에게 홍문이 다가가 하나만 달라고 한다. 하지만 은우는 그냥 줄 수는 없으니 바꿀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다. 홍문은 ‘치사해서 안 먹어!’라고 하고 가버린다. 뒷모습이 웬지 처량하고 불쌍해보이는 홍문. 이 둘을 지켜본 관중. 자신의 모습을 딸에게서 보자, 웬지 모르게 화가 난다. 잠시 후 홍문은 엄마 몰래 구슬 박힌 장신구를 훔쳐다가 은우에게 내밀고 콧감을 받는다. 관중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은우에게서 장신구를 뺏고, 은우는 그 장신구가 맘에 들었던지라, 울며불며 뺏으려고 든다.

평소에는 사이좋던 이 부녀가 사사건건 서로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지켜보실까요?

2. 울 준비는 되어있다.

변비에 걸린 홍문. 엉덩이 근처에 손만 닿아도 나올 것만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오지만 정작 측간으로 달려가면 나와야 할 것이 나오지 않고 배는 점점 불러와 아파 죽을 것 같다. 거의 울 것 같은 지경에 놓인 홍문은 급하게 측간으로 가다가 덕봉이 아끼는 고추장독을 깨고야 마는데.. 일단 급하니까 측간으로 들어가고, 덕봉은 지나다 고추장독이 깨진 것을 보고 경악을 한다. 홍문은 덕봉을 측간의 문 틈사이로 보고는 위기모면을 위한 작전구상에 들어간다.

염소똥만한 변이 뿜~하고 빠지며 번쩍 생각이 나는 것은 덕봉이 자신을 부르면 스스로 엉덩이를 찢어 눈물을 쏟고 보자는 것! 과연 홍문은 무사할 수 있을까?

3. 셋! 너와 나만의 비밀~

초봄, 새벽에 설사가 계속 되는 미암. 양반 체면이고 뭐고 화장실을 밤중에도 두 세 번씩 측간을 들락달락거린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암이 너무나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는 도중 바지에 일을 보고 만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 궁리를 하는 미암. 가장 체면에 자식들이나 아내를 부를 수는 없고, 옥석이에게 살짝 빨아다 달라고 부탁을 한다. 하지만 내심 옥석이가 이 일을 발설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다음날부터 옥석이 뒤를 밟는데...

4. 가마놀이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홍문과 은우가 놀다가 다툰다. 대공과 몽근이가 둘이 치고 박고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다가 싸움에 휘말린다. 싸움의 원인은 ‘가마꾼의 눈을 가린 채 집을 한식경만에 둘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나뉜 것 때문.

홍문은 ‘할 수 없다’ 쪽, 은우는 ‘할 수 있다’ 쪽.

몽근은 홍문에게 얹히고, 대공은 은우에게 엮인다. 넷이 머리를 맞대고 이 싸움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방법은 단 하나, 실제로 해보자!는 것. 과연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5. 윗놀이판의 정체모를 냄새, 누구냐!

미암의 집 식구들 모두가 소풍을 가기로 한 날. 비가 온다. 한껏 들떠있던 미암가족은 김이 빠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할지 난감하다. 그러다 번뜩, 윗놀이를 하자고 덕봉이

제안을 한다. 옷놀이 판이 벌어지고, 미암과 덕봉이 한편, 은우어미와 은우가 한편, 흥문과 경렴의 처가 한편, 경렴과 관중이 한편이다. 소의 다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기로 한 것. 이긴 팀에게는 소의 다리가 저녁반찬으로 통째로 주어진다. 네 편이 번갈아가면서 한번씩 던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렴과 관중이 계속 앞서나간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어디선가 정체모를 냄새가 나면서 한번 던졌을 때는 분명 도였던 것이 어느 순간 옷이 되고, 걸이였던 것이 모가 되는데.. 누군가 조작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느끼지만 누구도 본적이 없다.

결국 소의 다리는 경렴과 관중에게로 돌아가고, 신나게 다리를 뜯고, 씹 싸먹고 축제 분위기인 그들 외의 가족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결국 가족회의중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정신이 혼미했었다. 눈앞이 어지러웠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회의 끝에 다시 한번 옷놀이를 해서 진상을 밝히자고 하고, 상품은 닭 한마리! 하지만 또 다시 정체모를 냄새가 풍겨나오고.. 경렴과 관중의 우승이 목전에 놓였는데.. 과연, 정체모를 냄새는 무엇??

6. 복면의 여인

한밤중. 미암의 집에 자객 한명이 떨어진다. 담을 타고 나르다가 떨어진 모양. 검은 옷과 복면, 두건으로 위장을 한 채 장검을 가진 자객은 보기에다 무술의 고수처럼 보인다. 일단 의식이 없어 방으로 옮겨 놓은 뒤 주위에 둘러앉아 관찰을 하는 가족들. 차마 겁이 나서 복면을 벗겨보지 못한다. 하지만 상처가 깊은지 땀을 뻘뻘 흘리고 쉽게 깨어나지 못한다. 걱정이 된 미암은 양예수를 청해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겹옷을 벗겨보니 여인임이 드러난다. 양예수는 물러가며 의녀를 보내준다. 의녀의 치료와 보살핌으로 건강을 찾게 된 여인은 미암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두 앞에 나서는데, 아니이게 웬일! 너무나도 미인인 것이다. 미암을 비롯하여, 관중, 경렴, 대공, 몽근까지 훌쩍 반하게 만드는 여인.

이 여인의 정체는?

여인이 집으로 돌아간 뒤, 남몰래 열병을 앓는 광선. 실은 그 여인이 광선과 혼담이 오고간 김장의 딸 소형이었던 것.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변복을 하고 미암집의 담을 넘은 것이었다. 소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광선은 자신을 보러 온 소형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7. 구화가출사건

몽근의 처인 구화가 함평에서 도망을 쳤다는 전갈이 온다. 몽근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같이 성을 내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런 몽근을 옥석이가 보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말을 걸다 구화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옥석은 미암에게 알려지도록 몽근을 미암이 있는 사랑방 근처로 데려가 구화의 가출에 대해 크게 떠든다. 미암은 옥석이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아채지만, 자신도 말을 타고 출타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몽근이를 내보낼 수가 없는데, 몽근이가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자 특별히 시간을 내주어 구화를 잡으러 가게 해준다. 자신의 서찰을 함평현령에게 보여주면 도와줄 것이라 이른다. 함평으로 득달같이 달려간 몽근. 현령을 만나려고 하지만 노비가 어딜 들어가느냐며 방해하는 자들을 만나고, 말을 잃어버리고, 서찰이 땀에 번져 지워져있고, 어렵사리 현령의 도움을 얻어 방을 붙이지만, 포졸들이 잡아들인 여자는 구화와 인상착의가 비슷하지만 정작 구화는 없고! 애가 타고 정신이 없는 몽근. 과연 구화를 찾을 수 있을는지?

8. 상상쟁이 홍문엄마

꿈에 자신이 나체로 집안을 돌아다녔는데, 몸이 붉었다고 덕봉에게 말하는 미암. 이는 필시 길조이니 어떤 꿈일지 해몽을 해보자고 한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경렴의 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까닥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어버리는 터.

시아버지의 누드가 떠올라 얼굴이 빨개진다. 하지만 미암의 꿈에는 점점 사람이 들어가는 데.. 모두들 나체에 붉은 몸으로 등장한다는 미암의 꿈이야기는 홍문엄마의 상상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감당이 안 되서 혼자 고개를 흔들고 식구들을 보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가는 듯, 뒤에 홀린 사람마냥 호들갑스러워진 홍문엄마.

처음에는 미암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미암의 애기만 나와도 얼굴이 빨개지고 미암이 꾸 꿈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수록 피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 방에 들어앉아 나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데..

미암이 걱정이 되어 며느리를 찾아오는데..

9. 엉뚱한 천재소년

손님이 찾아오고, 마침 미암이 출타중. 대청에는 은우만 있고 기다리기 심심한 손님은 은우에게 말을 걸지만, 말 거꾸로 하기에 재미가 들린 은우는 똑바로 말을 안한다.

은우가 하는 말거꾸로 하기는 이렇다.

첫 번째 버전

다녀오세요-> 요세오녀다.

밥주세요-> 요세주밥

배고파-> 파고배

귀파줘->줘파귀

나이빠?-> 빠?이나

두 번째 버전은 ‘못으로 망치를 박자’, ‘국으로 젓가락을 먹지 마라’와 같이 앞뒤의 단어를 바꾸는 것.

이 손님은 과연 무사히 용무를 마치고 갈 수 있을 것인지??

10. 귀차니스트 은우어미

은우어미는 만사가 귀찮다. 남편도 통 시들한 모습만 보이고, 자신도 사는데 의욕이 없다. 축 처져서는 어기적어기적 집안을 누비고 다니는데, 마침 내일이 제삿날이라 모두들 제사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은우어미는 시큰둥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덕봉이 지나다니면서 은우어미를 툭툭 치고 다닌다. 어느 순간부터 고의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은우어미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11. 찻술을 썬야지!

홍문이가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잠을 자서 이가 아프다고 호소를 한다. 미암은 홍문을 데려다가 녹용가루2잔을 마시게 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자신이 씹어 잘게 만들어 이것으로 헛바닥과 이 구석구석을 닦아내라고 한다. 홍문은 싫다고 도망을 한다. 어떻게든 찻술질을 시키

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12. 구경의 달인

덕봉이 구경을 좋은 자리에서 하기 위해 미암을 닥달해 입장권을 얻어오게 하려 하지만, 미암과 사이가 안 좋은 홍기수가 의막체를 얻어, 미암은 입장권을 얻지 못하고, 결국 덕봉이 스스로 나서서 입장권을 구해보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래도 구경을 포기 할 수 없는 터!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한 덕봉! 모두가 말리지만 끝내 나무에 올라가서 왕의 행차를 보는 덕봉. 그런데 갑자기 나뭇가지가 삐걱 소리를 내며 꺾이려 하는데...

13. 요강은 나의 것

장터에서 엿장수를 본 홍문이는 엿을 먹고 싶어 안달이 난다. 집에 돌아온 홍문의 눈에 포착된 것은 미암이 아끼고 아끼는 요강! 홍문은 미암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요강을 훔쳐 달아나려는데, 중문에서 노비 몽근과 부딪친다. 몽근은 홍문이 요강을 훔치려는 것을 알아채고, 공범자가 되어 함께 장에 가 요강을 팔려하는데....

14. 마누라님 무서운 처가살이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관중은 아침부터 힘이 없다. 오늘은 대체 뭘 해야 하나, 남들은 다 제각기 할 일을 하는데, 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관직에 나가길 바라는 부인의 마음은 알지만, 관중은 공부가 죽도록 하기 싫다.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겠노라 마음을 먹고, 늘 가던 기녀들에게 찾아가는데, 기녀들은 한량노릇을 하는 관중을 한심하다고 욕하고, 그 말을 들은 관중은 화가 나서 기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는데...

15. 못 말리는 가족 단합대회

덕봉의 생일을 맞이하여 미암의 집에서는 재미난 잔치를 기획한다. 늘상 하는 평범한 잔치보다는 이왕 다들 모이는 거, 가족단합대회를 하자는 것이다. 미암과 덕봉을 주축으로 하여 두 개의 편으로 나누고 총 3번에 걸쳐 경기를 갖도록 한다. 최종 상품은 부채 5개!와 진편이 이긴 편에게 하루 동안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심사위원은 몽근, 대공, 옥석이가 보기로 한다. 1점에서 10점까지 매기도록 하고, 진행을 돕는다. 하지만 진행 도중 손님이 찾아오고, 2장에서 장기자랑으로 미암편에서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춤을 추고, 능청을 떨고 있는 모습을 들리게 생겼다. 몽근이가 나가서 집안이 어지러워 명함을 두고 다음에 오시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먼 길을 온 손님은 가려고 하지 않는데...

<구경의 달인>

1. 길가, 오전

여자 둘이 지나가며 속닥거리고 있다.

여1 어머어머, 이번에 의막체 입장권 다 나갔다면?

여2 당연하지. 그게 남아나겠어?

여1 세상에~ 빠르기도 하지.

여2 요샌 양반가의 안방마님들도 길가에 자리 깔고 볼 정도래!

여자 둘 머리를 가까이 대고 킁킁거리며 덕봉 곁을 지나간다.

여자들의 소리에 귀가 얼굴만큼 커진 덕봉.

썩썩하게 방향을 틀어 집으로 향한다.

2. 미암의 집, 마당

쿵 쿵 쿵 쿵, 온 집안이 울리도록 쿵쾅거리며 안방으로 향하는 덕봉.

몽근과 대공, 옥석은 마당에서 비질을 하다 덕봉이 나타나자 그대로 굳어버린다.

덕봉이 안방 앞에 다다르자 우뚝 선다.

덕봉 (손가락을 튕겨 딱 소리 내며) 땡!

몽근, 대공, 옥석은 얼음땡에서 얼음이 풀린 듯 다시 살아나 열심히 비질을 한다.

덕봉은 그대로 마루에 올라 안방 문 앞에 선다.

3. 안방

미암은 덕봉의 그림자가 방문에 비치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책에 코를 박는다.

거대한 그림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덕봉 영감. 여기서 뭘 하는 게요? (미암 곁으로 바짝 붙어 앉는다)

미암 (고개를 돌리며) 보면 모르오. 공부중이지 않소.

덕봉 내 듣기에 의막체 입장권이 다 팔렸다는데..

미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오! (책상을 들고 책 돌아앉는다)

덕봉은 미암의 허리를 양팔로 목을 감고 양발로 허리를 감고 조이기 기술을 들어간다.

미암은 덕봉이 기술을 걸자 숨이 턱턱 막혀오기 시작한다.

덕봉 이래도 모른 척 하시겠다?

미암 (버둥거리며) 아이고! 은우야~ 니 할애비 죽는다~~

4. 안방 앞, 마루

다다다다 소리를 내며 은우가 뛰어와 방문을 열고 뺨뽀 고개를 내민다.

은우 할아버지 괜찮아요?

미암 (헤엄치 듯 버둥거리며) 은우야! 살려줘~~

덕봉 (미암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장난치는 거야~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문을 닫는다.

5. 안방

미암은 몸에 힘이 쭉 빠져 덕봉에게 몸을 맡긴다.

덕봉은 미암을 머리 위로 올려 빙빙 돌린다.

미암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으아아아아아~~

덕봉 말해! 내 입장권 어딴어!!!

미암 일단 내려줘~!!

덕봉 미암을 방석 있는 곳으로 툭 던진다.

미암 허리를 부여잡고 아픈 시늉을 한다.

덕봉 있어? 없어?

미암 (고개를 숙인 채) 없..어..

덕봉 뭐야!!!!

덕봉은 방안에 있는 책을 모두 끌어내려 척척 쌓는다.

그리고는 초에 불을 붙여 미암 얼굴 앞에 흔든다.

사색이 된 미암.

덕봉은 그대로 돌아서서 방문을 나서며 초를 책 위로 던진다.

책 위에 정확히 떨어진 초는 책에 불을 붙여 나간다.

미암은 화들짝 놀라 옷으로 불을 끄려 하나 꺼지지 않는다.

미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이야!!!!

몽근, 대공이 대야에 물을 떠와 책에 물을 뿌린다.

석.. 등에서 연기를 뿜으며 허망하게 서 있는 미암. 물벼락을 맞았다.

6. 길가집 의막으로 허가된 홍기수의 집 대청

노소를 불문하고 양반남자들이 잔뜩 모여 있다.

한 손에는 다들 무언가 값나가는 물건들을 하나씩 들고 있다.

양반1 (앞사람을 비집고 들어가) 영감~ 이 말총갓 받으시고 입장권 좀 주시오~

양반2 새치기하지마~ 내가 먼저 왔다고!

홍기수 이거, 정신없어서 원~

홍기수는 관심 없는 채하며 코딱지를 파내 손가락으로 튕긴다.

날아오는 코딱지를 손가락으로 잡아 홍기수 코에 도로 넣어주는 덕봉.

화들짝 놀래는 홍기수 덕봉을 쳐다본다.

덕봉은 터지기 일보직전의 남자옷을 입고도 여유 있는 웃음을 짓는다.

덕봉 (남자목소리 내며) 입장권 남았소?

기수 있을 리가 있겠소?

덕봉 (얼굴 일그러지며)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있소?

기수 실은 딱 한 장이 남았는데..

덕봉 (기수의 손을 잡으며) 내게 넘기시오.

기수 (손을 뿌리치며) 뭘 보고?

덕봉 (황모봇과 백지3권을 내민다) 여기..

기수 (쳐내며) 이런 건 너무 흔하지 않소!

황모봇과 백지3권이 땅바닥에 떨어진다.

덕봉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여자목소리로) 아니,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기수 (여자목소리에 놀라) 뭐야 당신?

덕봉은 홍기수의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얼른 도망간다.

기수 (맞은 곳을 문지르며) 뭐야!

덕봉 다시 쭈르르 달려와 황모봇과 백지3권을 주워간다.

홍기수는 어이없다는 듯 덕봉의 뒷모습을 본다.

7. 미암의 집-부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금과 구화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여자옷으로 갈아입은 덕봉은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덕봉 진금이, 전 뒤집어라! 구화 솔뚜껑열고 밥 저어라~!

구화 (속삭이며) 참말로.. 가만히 계셔도 알아서 잘~~할꾸마~

진금 (구화에게 머리를 갖다 대며) 그러게. 근디, 장작을 뒤집으라고?

구화 (진금에게 멀찍이 떨어지며) 야가 뭘소리다냐~

진금 뭘 뒤집으라고?

구화 (손칼 세워 휘두르며) 카! 전 뒤집으라고!

진금 (전 뒤집자) 다 탔네..(머리 긁적)

덕봉 느그들~!! 똑바로 안 하냐!!

진금/구화 (기어들어가며) 예..

술을 열어 밥을 휘젓는 구화.
진금은 전을 몰래 장작 속에 넣으려한다.

덕봉 진금이! 뭐하는 짓이여!
진금 헉!(덕봉을 보며 사색이 된다)
덕봉 아유~~! 속 터져~~ 나가있어!

장작을 손에 쥐고 부엌에서 나오는 진금.
있는 힘껏 장작을 공중에 던진다.
지나가던 새가 맞아 땅으로 툭 떨어진다.
깜짝 놀라는 진금, 자신의 손을 본다.

8. 은우어미의 방

은우어미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있다.
옆에서 은우도 자신의 얼굴에 화장을 한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덕봉이 들어온다.

덕봉 나도 화장 좀 해줘!!

은우어미와 은우는 동시에 허연 얼굴로 덕봉을 돌아본다.
덕봉 순간 뜨억~!하며 뒷걸음질 친다.

9. 마당

덕봉과 은우어미, 은우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화려한 의복에 어우동 모자를 쓰고 나란히 서있다.

덕봉 애들아, 준비됐지?
은우어미 예! 가시죠.

셋은 나란히 엉덩이를 찢룩이며 걷는다.
뒷간에서 일을 보고 나온 미암은 그들 셋의 뒷모습을 보고 뒤를 밟는다.

10. 길가

이상한 느낌의 트리오가 걸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서서 구경을 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자 더욱 신이나 힘차게 엉덩이를 찢룩이는 세 여자.
미암 얼굴이 붉어지며 주위를 둘러본다.
사람들이 미암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미암은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여자들을 따라간다.

11. 홍기수의 집 마당

여자들이 한쪽에서 전을 부치며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다.
남자들은 홍기수 근처에서 모여 있다.
갑자기 대문이 열리고 이상한 기녀 트리오가 나타난다.
사람들 순간 경직되서 마당에 정적이 흐른다.
사람들 사이가 흥해바다 갈리듯 갈린다.
그 사이를 사뿐사뿐 걸어가는 세 여자.
길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유혹의 눈빛을 보낸다.
은우도 아이들에게 윙크를 날린다.
은우에게 윙크를 받은 아이는 메롱~하고 혀를 내민다.
은우가 아이에게 달라붙어 싸우려고 하자
덕봉이 은우의 뒷덜미를 붙들고 끌고 간다.
한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홍기수의 양팔에 한쪽씩 은우어미와 은우가 매달린다.
꼼짝 못하고 있는 홍기수의 턱을 부여잡고 도발적인 미소를 짓는 덕봉.
홍기수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듯 얼굴빛이 잿빛이다.
덕봉은 홍기수에게 한 팔을 올리고 웨이브 댄스를 추지만
몸 곳곳에서 빠드득 소리가 난다.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기 시작하고
멀리서 보고 있던 미암은 주먹을 짝 쥐 채 부르르 떤다.
덕봉의 최후의 일격으로 ‘우~’ 입술을 내미는 덕봉.

미암 (헐레벌떡 뛰어오며) 안~~~돼~~~!!!!

달려온 미암은 덕봉을 한쪽으로 밀어버리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 몇 걸음 더 나가버린 미암은
홍기수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버리고 만다.

기수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며) 으웁~~~

미암 (후다닥 일어나 세 여자의 등을 떠밀며) 얼렁 집에 가!!!

사람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뼉을 치고 웃는다.

12. 미암의 집, 안방

화가 난 미암, 덕봉을 앉혀놓고 주위를 뱅뱅 돌며 분위기를 잡는다.

덕봉 (버럭) 아, 어지러워! 앉아서 말해.

미암 (기가막혀) 지금 당신이 화 낼 입장이야?

덕봉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이 못 가겠다면!

미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꼴이 뭐야?

덕봉 꼴이 어때서? 다 된걸 끝에서 망친 게 누군데!

미암 (부들부들 떨며) 다 됐다고? 그 친구 얼굴 못 봤어?

덕봉 왜 못 봐! 쯔만 더 구워삶으면 다 된 거였어!
미암 시끄러! 구경이고 나발이고, 오늘 꿈쩍 말고 집에 있어!
덕봉 (신경질)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미암 그랬단 봐!
덕봉 입장권도 못 구해오는 주제에! 흥!

덕봉 찬바람을 일으키며 방문을 팡 소리 나게 닫고 나가버린다.

미암 (고개 숙이고 한숨) 휴..

13. 마당

덕봉이 마당 한 가운데에 우뚝 서서 소리친다.

덕봉 영감 빼고 다 모여!!!

두다다다 소리를 내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장남인 경림과 사위 관중은 시큰둥한 얼굴로 어기적어기적 걸어 나오고
그 옆으로 은우와 홍문이 툭툭거리며 달려온다.
은우어미는 아이들 뒤에서 함께 뛰어 나온다.
몽근과 대공은 마구간에서 구유를 들고 나오고
구화와 진금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다.
이들이 모두 모이자 덕봉 앞에 일렬로 선다.

덕봉 지금부터 구경을 갈 것이다. (앞서 가며) 가자!
은우 할아버지는요?
덕봉 영감은 빼! 따라와!!

덕봉이 앞장서자 모두들 우르르 뒤를 따라 나간다.
걱정이 되는 듯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경림.
그때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린다.

14. 행차길 옆 거리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거리
성균관의 유생들 몇몇도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관원들이 행차 길을 일렬로 서서 경계선을 만들고 있다.
덕봉이 사람들을 제치고 행차 길에서 가장 가까운 나무 아래 선다.

덕봉 자! 어디 올라가 볼까!
은우어미 어딜 올라간단 말씀이세요?
덕봉 당연히 타고 올라가서 봐야지!
경림 아이고 어머니, 참으세요~

덕봉 무슨 소리! 잘 봐~
미암 (덕봉 팔 잡고)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찌려고 그러시오~
덕봉 아니, 이 영감탱이가 언제 왔어?
미암 아~ 걱정이 돼서 말이지!
덕봉 듣기 싫소!

덕봉이 나무에 오르려고 몸을 잡자
미암이 덕봉의 치마를 잡고 놔주지 않는다.

미암 아니, 어딜 올라간다고 그래요.
덕봉 (미암의 손을 뿌리치며) 이거 봐요! 왜 따라와 가지고, 방해만 봐!

덕봉은 나무를 보고 손을 두 번 탁탁 털더니 나무를 척척 타고 오른다.
가지 하나에 걸쳐 앉자 나무가 덕봉이 앉은 쪽으로 기운다.

15. 나무 위

나무 위에 덕봉이 자리를 잡자 임금님의 행렬이 큰 음악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가지각색의 깃발과 호위군사와 너울을 쓴 궁녀들로 이어지는 천여 명이 넘는 행렬이 장관을 이룬다.
임금님의 가마가 점점 다가오자 기절할 듯 좋아하며 손을 흔드는 덕봉.

16. 나무 아래

나무 밑에서 온 가족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덕봉을 지켜보고 있다.

미암 마님께서 떨어지실지 모르니 한 시도 눈을 떼지 말거라!
몽근/대공 (씩씩하게) 예!
은우어미 (덕봉을 올려다보며) 어머니~ 지금 임금님께서 어디쯤 오셨어요?
덕봉 (sound) 응~ 거의 요 앞까지 오셨다~ 참말 멋지다. 멋져~~
은우 할머니, 멋져요? 우앙~~ 나도 보고싶어~~
덕봉 아이고~ 살살 목이 마르네. 은우애미야, 식혜 이리 내봐라~(손만 내민다)

은우어미가 챙겨간 식혜를 덕봉에게 주려고 까치발을 들어보지만 잘 닿지 않는다.
덕봉이 식혜를 받으려고 몸을 좀더 숙여 손가락을 움직이자 가뜩이나 위태롭던 나뭇가지가 툭 소리를 내며 꺾어진다.

덕봉 어어어어~~!!!!

덕봉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옆에 있는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다.

가족들 휴...살았다.

하지만 이내 그 나뭇가지가 툭 소리를 내며 꺾어버린다.
균형을 잃은 덕봉은 그대로 떨어진다.
사색이 된 미암, 팔을 벌려 덕봉을 받으려 하나
덕봉의 발에 맞고 튕겨져 나가고
재빨리 몽근과 대공이 팔을 뻗어보지만
덕봉이 떨어지면서 몽근과 대공을 덮쳐버려 몽근과 대공이도 함께 쓰러져버린다.
셋이 길가에서 나뭇굴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 왕의 행차를 보지 않고
덕봉과 몽근, 대공이 넘어져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본다.
몽근이는 제자리에서 데굴데굴 구르면서 신음을 토해낸다.

몽근 으메~으메~ 나죽네! 나죽어~
대공 아이고, 장가도 못가보고 죽게 생겼네~~~
덕봉 (뒹굴뒹굴 구르며) 내 꼴이 이게 뭐야~~
미암 (주위를 살피며) 여보, 빨리 일어나시오.
덕봉 (발을 동동 구르며) 이게 뭐예요!! 억울해~~

관원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몰려온다.

관원1 뭐니까. 빨리 일어나시오.
관원2 행차에 방해가 되니 소란 그만 부리시오.
미암 (덕봉에게) 빨리 일어나요~~ 제발!!
덕봉 (못들은 척) 아이구 허리야, 아이구 다리야~~

덕봉, 미암이 보라는 듯 더 엎살을 부리며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든다.

17. 임금의 행차 행렬

가마 안에 있던 임금 뭔가 길가에 소란이 난 것을 본다.

임금 멈추어라.

가마꾼들이 가마를 멈춘다.
가마가 멈추자 모든 행렬이 멈추고
음악이 중단된다.

임금 (사람들이 모인 곳을 부채로 가리키며) 저기 웬 소란이냐?
호위무사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임금 소란부린 자를 이리 데려오너라.
호위무사 예!

호위무사가 덕봉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18. 나무 아래

동그랗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헤치고 왕의 호위무사가 들어온다.

호위무사 무슨 일입니까?

구경꾼1 저 마님께서 나무 위에서 떨어지셨습니다.

호위무사 (덕봉에게) 나무에는 왜 올라가셨습니까?

덕봉 일생에 한번 볼까말까 한 구경 아닙니까!

호위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다 다시 고개를 흔들고
덕봉의 팔을 잡는다.

호위무사 저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미암 (가로막으며)아니, 왜 그러십니까?

호위무사 전하께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미암 기절 할 듯, 하늘이 빙빙 돈다.

덕봉 그럼 가십시다!!

경림 어머니!!

덕봉 괜찮다. 갔다 오마! (손을 흔든다)

호위무사에게 끌려가는 덕봉.

19. 임금의 가마 앞

호위무사에게 팔을 잡혀 끌려오는 덕봉을 바라보는 임금.

가마 앞에 이르자 가마를 사각으로 두르고 서 있는 호위무사들 사이로
임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임금 (호위무사들에게) 물러서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호위무사들이 재빠르게 길을 터준다.
그 사이로 덕봉이 들어와 가마 앞에 선다.

임금 보아하니 양반가의 아녀자 같은데, 어찌 그리 소란을 피웠소?

덕봉 황궁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행차를 자세히 보고 싶었던 것뿐이옵니다.

임금 의막을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요.

덕봉 그곳은 이미 꼭 차 소인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임금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소?

덕봉 예.

임금 허허. 백성들에겐 이런 행차를 볼 일이 별로 없을 테지.

덕봉 뿐만 아니오라 격식을 따질 필요 없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녘니까.
임금 그래, 그렇지.
덕봉 그리 생각하여 소인이 본을 보인 것이옵니다.
임금 허허허. 그대가 참으로 말을 재밌게 하는 구료.
덕봉 미진한 재주가 전하께 즐거움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임금 그래도 내 성의를 표하고 싶은데..(손에 들린 부채를 보고) 이 부채를 하사하노라.

호위무사가 임금이 내미는 부채를 받아다 덕봉에게 건넨다.
덕봉이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부채를 받고
임금께 절하고 일어난다.

덕봉 황공하옵니다.
임금 앞으로는 의막을 늘려 모두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열도록 하겠노라.
덕봉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 그러니 앞으로 나무에 매달리는 일은 그만 하시게~
덕봉 우허허허. 그러지요.

임금이 손짓을 하자 호위무사들이 덕봉이 갈 길을 만든다.

임금 그럼 계속 즐겁게 지켜보시게.
덕봉 만나 뵈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임금 고개를 끄덕인다.
덕봉은 호위무사들의 안내에 따라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가족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덕봉을 바라본다.
모여 있던 사람들은 덕봉을 보자 박수를 친다.

20. 행차길 옆 나무 아래

덕봉이 부채를 흔들며 보이며 가족들에게 다가온다.
미암 덕봉을 붙들고 숨을 크게 쉰다.

미암 어떻게 된 거요?
덕봉 (부채를 보여주며) 임금님께 받은 것이요.
미암 역정을 내지는 않으셨소?
덕봉 내가 누군데!! 그럴 리가 있소.

미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덕봉 아~ 재밌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홍문 어~ 우린 아직 못 봤는데!!!
덕봉 그랬어? 그럼 안 되지~~몽근아! 대공아!(눈짓을 한다)

몽근/대공 예!!

몽근과 대공이가 홍문이와 은우를 목마에 태워 행차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은우 우와~~ 디게 잘 보인다!!

홍문 진짜! 엄청 길다~! 어? 임금님이 손 흔든다!! (같이 손을 흔든다)

멀리서 임금이 홍문을 보았는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든다.

덕봉 흐뭇하게 웃으며 부채를 펼쳐 부채질을 한다.

미암은 어이없다는 듯 덕봉을 바라보고 있다.

21. 미암의 집-안방,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암이 긴장이 풀려 쓰러지듯 방바닥에 눕는다.

하지만 덕봉은 부채를 들고 이리저리 방을 휘젓고 다니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

미암은 누워서 결눈으로 덕봉을 바라본다.

지칠 줄 모르는 왕성한 기력의 덕봉에게 놀라 입이 떡~ 벌어진다.

22. 대청

저녁상이 차려지고 모두들 상 앞에 둘러앉았다.

경렴, 경렴처가 한 상에 앉고 은우어미와 은우, 윤관중이 한 상에 앉고 미암과 덕봉, 광선, 홍문이 한 상에 앉았다.

그들 뒤쪽으로 대공, 옥석, 몽근, 구화, 진금이가 대기중이다.

다들 힘든 낮을 보낸 뒤라 기운이 없는데 덕봉은 활기차게 웃으며 저녁을 맛나게 먹는다.

덕봉 우허허허! 행차가 어찌나 멋들어지던지! 내 평생 그런 구경은 다신 못 할거야~

은우어미 어머니는 많이 보셨겠지만, 전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다구요~

덕봉 다 자기 하기 달린 일이란다.

은우어미 썰쭉해져서 밥만 먹는다.

은우 할머니~~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행렬은 처음 봤어요~~

덕봉 신기하지? 다 궁에서 임금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란다. 정말 장관이야!

미암 오늘 다들 힘들었을 텐데 많이들 먹어라.

모두 네에-

저녁을 마친 뒤 각자 방으로 가고 남은 음식들로 노비들이 식사를 한다.

대공 오늘은 다들 영~ 기운이 딸리시는 갑네~ 맛난 반찬이 이리 많이 남은 것이~~

몽근 마님은 그래도 다 드셨구만! 헤헤.

옥석 히히, 역시 마님이시네요~

이들도 진금, 구화와 함께 구경 갔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을 먹는다.

23. 다음날 아침- 안방

꽁꽁 앓는 소리가 난다.

이부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한 채 신음소리만 내는 덕봉.

미암도 고개가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움직여지지 않고 아프기만 하다.

미암 밖에 광선이 있으면 들어오너라.

광선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관중과 은우어미도 문안인사를 올리려고 함께 들어온다.

광선 할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관중 아버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미암 광선이 너 가서 양예수 선생 좀 모셔오너라.

광선 할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미암 목이 꿈쩍을 앓는구나. 너희 할머니도 많이 편찮으시니 서둘러 모셔 와야 한다.

은우어미 어제 하루 종일 고개를 젓히고 계셔서 그런가보네~

광선 예. 서둘러 다녀오겠습니다.

광선이 방문을 열고 나간다.

24. 대청 앞마당

마당을 쓸고 있는 몽근이 보인다.

광선 몽근아. 나랑 양예수 의원택에 가자.

몽근 아니, 누가 아릅니까요?

광선 할아버님과 할머니께서 편찮으신가보다. 서두르자.

몽근 어따. 어제 그 난리를 부리셨으니, 탈이 날만도 하지~

광선 난리?

몽근 그런 일이 있어라~ 크크. 어서 가십시오요~!

몽근이 앞서 걸어가자 광선이 고개를 좌우로 가우똥하며 뒤를 따라간다.

25. 안방

미암과 은우어미 관중이 앉아있다.

미암은 고개가 아픈 듯 계속 목을 빼딱하게 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때 관중이 눈치 없이 한마디 한다.

관중 오늘 우리 고을에 장원급제한 선비가 내려와서 행차를 한다고 하던데~~

이불 속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덕봉. 이불이 꿈틀하고 움직인다.

은우어미 어머니께서 이렇게 앓고 계신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관중 (모른 척) 아니 뭐~~ 그렇다구~~

은우어미에게 변명처럼 대답을 하면서도 비실비실 웃고 있는 관중.

미암은 이불에서 폼지락거리는 덕봉을 바라본다.

관중과 은우어미에게 나가라고 고갯짓을 하는 미암.

고개가 안 돌아가자 으! 신음소리와 함께 눈물이 찔끔 난다.

은우어미 은우가 어디 있더라.. 흠. 여보. 우리 이만 나가봅시다.

관중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 그럼 쉬세요~

미암 니들도 쉬어라~

미암 부인, 몸이 아프니 또 구경하겠다고 나서진 못하겠지요?

(배를 움켜잡으며)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가 아프네..

엉거주춤 방을 나서는 미암.

26. 측간

문이 열리고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미암이 나온다.

안방으로 가는 미암. 고개는 빼딱한데도 걸음은 가볍다.

덩실덩실 팔을 휘저으며 춤추듯 걸어간다.

27. 안방

미암이 방문을 째! 하고 연다. 하지만 텅~ 비어있는 방안.

미암 아니! 이사람이 어딜갔지?

덕봉이 없자 미암은 방문도 열어둔 채 방을 나선다.

신을 신고 나와 '설마~'하며 담장으로 간다.

28. 담장 앞

담장에 박쥐처럼 매달려 장원급제 행렬을 구경하며 신이 나있는 덕봉.

담장은 덕봉이 몇 번 쓸러 내려왔는지 몇 군데 굵히고 부서져있다.

발로 버둥대면서도 목을 담장에 걸치고 끝끝내 버티고 있는 덕봉.

팔은 부들부들 떨리지만 표정은 웃고 있다.

미암 헉!! (눈이 튀어나올 듯)

미암의 고개가 저러온다. 목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서있는 미암. 어처구니없는 표정이다.

미암이 덕봉에게 다가가 덕봉의 허리를 붙잡고 말한다.

미암 여보, 몸도 성치 않은데 이게 뭐하는 것이요. 그만 내려오시오~

덕봉 놔봐요~~!! 한참 재밌는데~

미암 내려오래두~~

덕봉이 흘깃 뒤를 바라보니 미암의 목이 뼈뚫하니 왼쪽으로 기울어져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덕봉 (오른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저기 봐라!!

덕봉이 큰 소리로 ‘저기 봐라!’ 하자 미암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려한다.

하지만 이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목이 아파 ‘으악!’소리를 내고 쓰러진다.

미암이 쓰러져서 목이 아프다고 영영 울자

덕봉은 그런 미암을 바라보며 씨익 웃는다.

그리고는 다시 장원급제행렬을 바라보는데 여념이 없다.

덕봉 아따~~ 참말로 잘~~ 생겨부렀네~~ (지나가는 장원급제한 청년에게) 몇 살이여?

급제청년 ??? (떠용~~)

쓰러진 미암에게 희미하게 두 명의 여인이 한쪽 담장에 매달려있는 것이 보인다.

아픈 목을 부여잡고 상체만 일으켜 자세히 보니 진금이와 구화다.

장원급제행렬을 보며 싱글벙글 웃고 있다.

그들을 보자 그만 힘이 빠져 털썩 누워버리는 미암.

미암 참말 구경의 달인들이로세!